

미술, 그곳에 사람이 있다



홍경안 역
시사일과

어떤 장소나 공간 주변의 상태와 특징 등을 고려해 그 장소와 미술이 유기적 의미를 갖게 되는 미술이 '장소특정적미술'이다. 실제 장소와 개념으로써의 장소 자체에 주목하는 설치작품은 물론, 장소를 근간으로 컨텍스트(context)와 과정을 다루는 '퍼포먼스', 미술과 미술가들의 공공적 역할인 사회문제를 미술적 이슈로 삼는 '관계지향적미술', 그 문제들에 관객들의 적극적인 협업과 참여를 유도하는 '비판적미술' 등이 모두 장소특정적 미술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장소특정적미술'을 그저 특정한 장소나 공간과의 호흡 속에서 성립하는 미술로 보는데, 이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정이다. 글자 그대로 특정 장소에 존재하도록 제작된 미술품을 뜻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오브제로서의 '미술'과 '장소'라는 분별적, 독립적 명사로부터 벗어나 점차 개념적으로 확장되어 왔음이 사실이며, 동시대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란 특정 장소와 상황을 미술이 수용함으로써 그 장소와 상황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까지 일컫는 뜻이다.

국내에서 '장소특정적미술'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시기는 1995년경이다. 조형예술품(조각, 벽화, 회화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 당시만 해도 '장소특정적미술'은 공공미술의 영역에 머물렀다. 때문에 미술을 공공공간에 가져다 놓은 것만으로도 도시 환경을 갱생하고 인간화한다고 여겼다.

하나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아름답거나 랜드마크로써 역할 하는 것, 불특정 다수의 익명의 삶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의 공간은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인데, 수준 낮은 작품들 때문에 대중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의외로 컸다.

특히 작품과 장소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했던 작업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작품이 재생산되면서 공공미술의 전위성이 자본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와 같은 현상은 새로운 담론에 불을 지폈다. 이때 발생하게 된 개념이 바로 '공공성'의 실현이다.

공공성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기억과 쟁점, 삶의 맥락을 수용한다. 공공공간의 주인은 시민이며, 공공의 공간을 대여하여 사용하는 미술은 그 자체로 공공성에 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그것의 올바른 성과가 공공성의 실현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다소 다르다. 공

동체를 발미로 한 기관의 선전화와 도구화로써 기능할뿐더러, '장소'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결국에는 미술관으로 회귀하는 미술의 부르주아성, 특정되거나 지정된 장소와 공동체가 단지 미술가의 작업 재료로 대상화되는 공동체의 소재화가 드물지 않다. 더구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이 유명해져 결과적으로 미술의 자본화를 개입시키고 거주민의 거주공간과 삶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도 크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장소특정적미술'은 무엇인가. 실제 사람이 참여하거나 협업 혹은 관계맺음이 제한적이지 않은 미술, 미술가와 미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들과 사람을 연계하는 미술, 공간과 장소에 실존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유관하게 행위 되는 미술 등이다.

만약 미술이 그 장소에 거주해온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주제인 '사람'을 담아내는 데 있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그 주체가 비호응적인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미술은 무엇인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미술이 당장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한 우리에게 빵을 주거나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푸집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인간가치의 회복과 소통의 매개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무시할 것도 아니다.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저축은행중앙회, 우수영업인 시상식 개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2회 저축은행 우수영업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어려운 영업 환경 속에서도 서민·중소기업 등 지원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저축은행 직원에 대해 감사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금호아시아나, 11회 제11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7일 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제 11회 금호아시아나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1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오사카·후쿠오카·가고시마·아오모리·돗토리 등 일본 각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7명이 응모해 일본 고교생들의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본선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6명이 참가해 한국어 스피치, 한국어 촌극(2인1조), 일본어 에세이 등 3개 부문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최우수상 4명, 우수상 7명, 특별상 4명 등 총 15명이 본상을 수상했다. /금호아시아나



동양생명, 2018 연도대상 시상식 개최
동양생명은 지난 1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류진룡 사장을 비롯 임직원과 수상자 187명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선 장금선 명인(52·경기사업부 새중앙지점)이 FC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왼쪽)류진룡 동양생명 사장, (오른쪽)장금선 명인.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임원, 소아암 아동 위해 항균키트 전달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5일 여의도 본사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암 환자를 돕기 위한 항균키트 호호상자 1000개를 제작하여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PCA생명 통합을 기념해 미래에셋생명 임원 35명이 봉사자로 참석했다. 호호상자는 면역력이 약한 소아암 환자들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소모품인 항균 물품들로 구성됐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6년간 총 6600명이 넘는 소아암 환자에게 약 3억6000만원 규모의 항균키트를 전달했다. /미래에셋생명

카톡 안되는 '열공폰' 학생만 필요할까?



기지수첩
김나인 (산업부)

일명 '열공폰(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소소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시대에 전화, 문자와 같이 기본 기능만 담은 휴대폰이다.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막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사용도 차단했다. 기본 기능만 추리고 나머지는 싹 떨어냈다.

일부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에서 수험생이나 중장년층을 공략해 내놓았는데 출시 이후 월 평균 2000명 내외가 가입하는 등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카톡이나 게임은 이용할

수 없지만, 전화·문자 등 최소한의 연락을 할 수 있고 전자사전·MP3 등 꼭 필요한 기능만 탑재했으니 수험생들은 공부에 집중할 여력이 마련된다.

답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을 빼곡하게 탑재한 스마트폰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마당에 열공폰의 선전 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열공폰은 비단 수험생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카톡과 같이 과도한 개방성을 지닌 플랫폼과 다양한 기능들은 오히려 과부하와 선택장애, 퇴근 후 업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라는 말이 있다. 퇴근 후에 카카오톡 등으로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SNS) 확산으로 항시적 업무환경이 조성

됨에 따라 논의되고 있는 권리 개념이다. 독일 노동부는 2013년 업무 이후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노동개혁법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85.5%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열공폰은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려는 수험생보다 스마트폰과 떨어진 삶과 관계, 여기에 '열공'하고 싶은 일반인에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 열공폰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기다려본다.

/silniki@metroseoul.co.kr

인사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정책실장 배병준 △ 보건 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윤태호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류근혁 △ 대변인 김현주 △ 질병관리본부 기획조정부장 박규렬 △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장재혁
- ◆국토교통부 △ 과장급 전보 △ 항공산업과장 박명주
- ◆중소벤처기업부 △ 과장급 전보 △ 벤처혁신기반과장 정기환 △ 과장직위 승진 △ 서울지방중소벤처

- 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배창우
- ◆농촌진흥청 △ 과장급 승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이강진
- ◆조달청 △ 서기관 승진 △ 시설총괄과 오덕기 △ 전자조달관리과 정길용
-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임용 △ 민간협력담당관 강선아 △ 과장급 전보 △ 경제제도개선과장 김정대 △ 한국법제연구원 고용유지 정책팀
- ◆한진 △ 전무B 승진 △ 신영환 △ 이준구 △ 상무보 승진 △ 서민석 △ 이법렬 △ 권옥민
- ◆유한양행 △ 부사장 △ 약품사업본부장 조옥제 △ 경영관리본부장 박종현 △ 전무이사 △ 약품사업본부 김상철 △ 생산본부 이영래 △ 약품사업본부 이병만
- ◆대한항공 △ 임원 승진 △ 전무A 노삼석 △ 전무B 황인중 △ 상무 조모란 조장희 김철 장영재 최민영 주우남 권영목 이종열 남기승 송명희 김정수 존 에드워드 잭슨 △ 상무보 노성재 권학삼 유영석 박태훈 이종혁 서상훈 정현보 정호윤 신성철 정경철 이명대 이장훈 장수병 김우현 임창근 김준환
- ◆새마을금고중앙회 △ 상근이사 △ 신용·공제대표

- 이사 권광석 △ 전무이사 김기창 △ 지도감독이사 황국현
-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감사 이병률 △ 석좌교수 김호동 △ 석좌교수 송호근 △ 약학대학교무부학장 성상현 △ 보건대학원 학생부원장 윤충식 △ 치의학대학원 교무부원장 권호범 △ 보건진료소장 김지원
- ◆부산MBC △ 광고사업부장 박희문 △ 보도국장 탁은수 △ 보도국 편집제작부장 남휘력 △ 창사60주년기획단 및 (사) 문화도시네트워크 사무총장 파견 류시호 △ 기획심의부 심의위원 이종훈
- ◆조선영상비전 △ 대표이사 김홍진

부음

▲심점순씨 별세, 전병현(영진전문대 교수)·병기(자영업)·병용(매일신문 구미김천혁신도시사업장 기자)·병규(회사원)·일(아수화학 재직)씨 모친상 = 18일 오전 7시 45분,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실 501호, 발인 20일. 053-956-4445

청호나이스, 기술과학 그림·글짓기 대회

청호나이스는 오는 4월1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기술과학 그림·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지난해까지 총 11회에 걸쳐 '자연사랑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엔 대회의 주제를 기술·과학으로하고 자사의 광고모델인 전 NASA 우주비행사 '데리 버즈'와 함께하는 '기술과학 그림·글짓기 대회'로 치른다. 그림대회의 경우 전국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글짓기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대학생 포함)



로 나눠 심사를 진행한다. 대회는 대상인 청호나이스 회장상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작을 선정해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 모든 참가자들에게 문구세트를 참가상으로 제공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9일까지로 선착순 30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호나이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집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2002년 5월 31일 정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100206	
제3917호 / 0011호	